

기능성 식품, 효과 · 안전성에 중점

일본, 공급다양화로 소비자 선택기회 확대 ... 구체적인 효과 표기해야

일본에서는 특정보건용 식품을 포함한 기능성 식품, 음료의 배합소재가 다양화됨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기회가 늘어나고 있다.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건강식품, 영양기능식품, 특정보건용 식품 3종류의 식품에 대한 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섭취해 얻을 수 있는 효과> 및 <안전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기능관련식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폭넓은 연령대 약 3500명으로부터 얻은 응답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기능성 관련식품 섭취의 전제가 되는 건강상태 의식에 대해서는 <건강하지 않다>가 연령대가 높을수록 비율이 높아져 71세 이상의 남성 가운데 31%, 여성의 27%에 달했다.

식사의 영양균형에 대해서는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사람 중 40세 이하 비율이 높다.

건강식품은 <매일 이용한다(59%)>와 <가끔 이용한다(26%)>를 합치면 전체의 85%가 이용하고 있는 셈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이용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건강식품에 대한 1개월 당 지출은 3000-1만엔이 43%를 차지했고 그 다음이 1000-3000엔으로 23%였다. 이용한 식품으로는 <비타민류>가 1위였고 <미네랄류>가 2위, <마늘, 로얄제리, 효모> 등이 상위를 차지했다.

고령자층은 식품이 상위를 차지했으나 40세 이하에서는 프로틴, 아미노산, 식이섬유가 5위권 안에 들었다. 선택하는 기준은 <효능이나 효과>, <안전성>이 상위를 차지했다.

표시 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구체적인 유용성>을 95%의 응답자가 들었으며 <복용방법이나 1일당 섭취량>, <안전성에 관한 정보>, <성분이나 분량>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영양기능식품에 관한 항목에서는 우선 <인지도>가 76%였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전체의 43%를 차지했고 이용하는 이유로서 <건강유지·증진>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 <질병예방>이 2위였다. 인정한 건강강조표시에 대해 약 40%가 <알기 쉽다>고 응답했으며 약 27%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특정보건용 식품을 현재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57%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용이유에 대해서는 영양기능식품과 같은 내용이었으나, 영양기능식품 보다 <건강유지·증진>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높았다. 특정 보건목적으로 허용되는 표시의 표현방법에 대해 <알기 쉽다>고 응답한 사람이 46%,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30%를 차지했다.

특히, 영양기능식품과 특정보건용 식품의 표시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30% 가까이 달해 좀더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건강·영양식품협회의 기준심사를 통과한 <JHFA> 마크부착 건강보조식품의 인지도는 63%를 나타냈다.

<화학저널 2004/08/22>